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</p>	보도자료		 <p>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</p>
	배포일시	2015. 8. 19(수) 총 4매(본문 2, 붙임 2)	
	담당부서	•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, 사무관 김동현, 주무관 정규철 • ☎ (044)201-3321, 3330	
	2015년 8월 2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9(수) 18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정부·업계, '뉴스테이' 붐 일으킨다

- 뉴스테이법 통과 계기로, 유일호 장관 CEO 간담회 개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유일호)는 8.20(목) 07:30, 메리어트호텔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건설단체 회장단, 주요 건설사 CEO가 참여하는 「건설 업계 CEO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 「뉴스테이법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)」 국회 통과를 계기로,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'뉴스테이'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이번 간담회에서, 유일호 장관은,



○ “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이상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연 5%로 제한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기회를 제공할 것”이라고 밝힌데 이어,

- “건설업체 입장에서라도 뉴스테이 사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언급하면서, “건설업체들이 그간에는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을 해왔다면,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, 시공, 임대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하여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□ 그리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유일호 장관은,

-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 시, 박근혜 대통령께서 “기업형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으므로,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”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,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, 정부도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,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,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회장과, 대형·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CEO 등이 참여하여 뉴스테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동현 사무관(☎044-201-33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

참고 1**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**

□ 時/所 : '15.8.20(목), 07:30~08:40 / 메리어트호텔(여의도)
B동 2층 파크카페 라이브러리

□ 참석자 : 총 24명

- (국토부 7명) 장관님, 주택토지실장, 건설정책국장, 주택정책관, 대변인, 주택정책과장, 건설경제과장
- (외부 17명) 대한건설협회(회장, 부회장, CEO 4명), 한국주택협회(회장, 부회장, CEO 4명), 대한주택건설협회(회장, 부회장, CEO 3명)

□ 논의사항 : 뉴스테이정책 추진계획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

□ 간담회 진행(안)

시간	소요	내 용	비 고
07:20~07:30	10'	장관님 도착 (1층 로비)	(영접) 주택토지실장
07:30~07:35	5'	참석자 소개	(진행) 주택정책과장
07:35~07:40	5'	인사말씀	장관님
07:40~07:46	6'	인사말씀 * 종료후 기자 퇴장	건협(2), 한국(2), 대한(2)
07:46~07:56	10'	뉴스테이법 설명(조찬병행)	주택정책관
07:56~08:26	30'	건의사항 청취	참석자
08:26~08:35	9'	건의사항 답변	주택정책관, 건설정책국장
08:35~08:40	5'	마무리 말씀	장관님

참고 2**간담회 참석자 명단** **대한건설협회**

기관/업체명	직위	성명
대한건설협회	회장	최삼규
대한건설협회	부회장	정내삼
현대건설	대표이사	정수현
롯데건설	대표이사	김치현
우미건설	대표이사	이석준
금성백조주택	대표이사	장성욱

 한국주택협회

기관/업체명	직위	성명
한국주택협회	회장	박창민
한국주택협회	부회장	유인상
대림산업	사장	김한기
한화건설	대표이사	최광호
신동아건설	대표이사	이인찬
GS건설	부사장	우무현

 대한주택건설협회

기관/업체명	직위	성명
대한주택건설협회	회장	김문경
대한주택건설협회	부회장	이원식
근화건설	대표이사	김호남
석미건설	대표이사	심광일
대광이앤씨	대표이사	조영훈